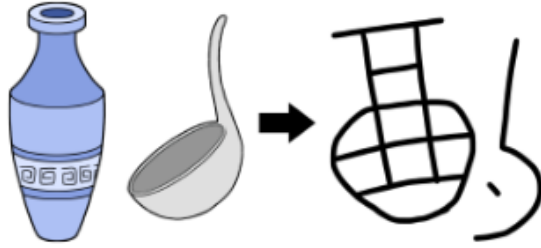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酌

술부을/
잔질할
작

酌자는 '따르다'나 '마시다', '짐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酌자는 酉(닭 유)자와 勺(구기 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勺자는 술 따위를 풀 때 사용하던 국자를 그린 것이다. 그러니 酌자는 술병에 있는 술을 국자로 퍼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酌자는 본래 의미도 '따르다'나 '마시다'였다. 酌자는 후에 '짐작하다'라는 뜻이 파생되었는데, 이는 술병에 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는 술을 마시며 상대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술을 받는 것은 酬(값을 수)라고 한다. 그래서 酬酌(수작)은 술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뜻했지만 이런 와중에 좋지 않은 일이 피해졌기 때문에 '수작(酬酌)을 부린다.'라는 말도 생겼다.

酌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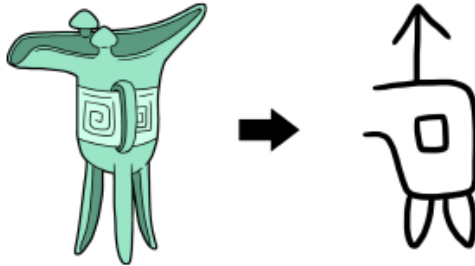
酌

소전

酌

해서

상형문자①



爵

벼슬 작

爵자는 '벼슬'이나 '작위', '술잔'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爵자에는 매우 다양한 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과는 관계없이 爵자는 술잔을 그린 상형문자이다. 이 술잔은 삼각대의 받침이 있는 것으로 잔 입구는 참새 부리를 닮았다. 爵자에 아직도 '술잔'이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이것이 본래는 술잔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술잔은 왕이나 고관들만이 쓸 수 있었다. 그래서 후에는 爵자 자체가 계급을 상징하게 되면서 '벼슬'이나 '작위'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爵

갑골문

爵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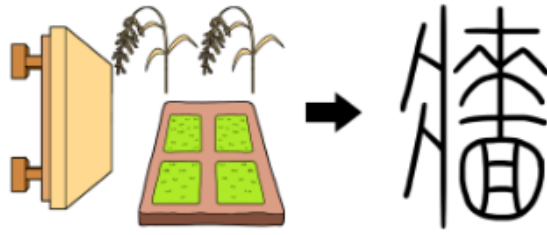
爵

소전

爵

해서

회의문자①



牆

담 장

牆자는 '담장'이나 '경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牆자는 土(흙 토)자와 牆(아길 색)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牆자는 논과 벼를 함께 그린 것으로 '수확한 곡식'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𡵓(나뭇조각 장)자가 들어간 牆(담장 장)자가 쓰였었다. 牆자는 수확한 곡식을 안전하게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의미였다. 후에 牆자가 주변과의 '경계'를 나누는 '담장'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해서에서는 담장의 재질을 표현한 牆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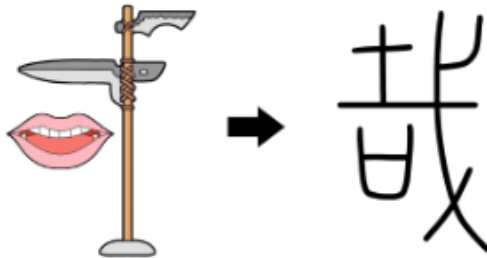
牆

소전

牆

해서

회의문자①



哉

어조사
재

哉자는 '어조사'나 '재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哉자는 口(입 구)자와 哉(어조사 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哉자는 창과 창술을 그린 것이지만 주로 '어조사'로 쓰이고 있다. 哉자는 이렇게 '어조사'로 쓰이는 哉자에 口자를 더한 것으로 역시 '하다'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고 있다. 哉자는 우리말에서의 쓰임은 거의 없고 간혹 쓰이더라도 감탄사와 같은 '외침' 정도로만 쓰인다. 특히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상용한자로 지정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哉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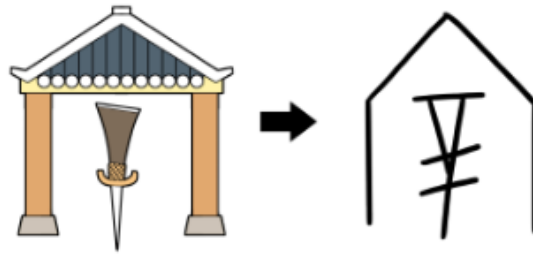
哉

소전

哉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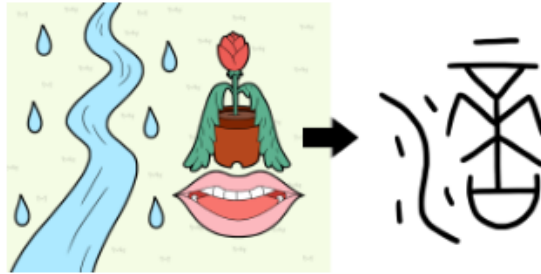
宰

재상 재:

宰자는 '재상'이나 '가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宰자는 宀(집 면)자와 宰(매울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宰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宰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여기에 宀자가 결합한 宰자는 본래 노예들을 관리하던 '우두머리'를 뜻했었다. 노예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관원(官員)'을 뜻했던 宰자는 후에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벼슬아치'나 '재상', '가신'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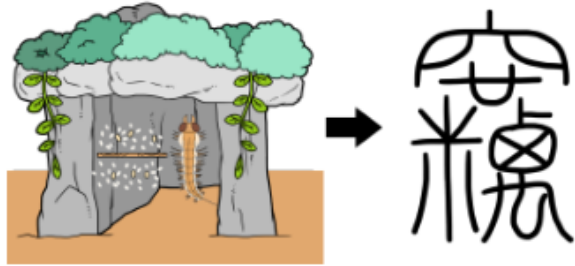
滴

물방울
적

滴자는 '물방울'이나 '(물방울이)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滴자는 水(물 수)자와 滴(밀동 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滴자는 이파리가 올라오고 있는 화초를 그린 것으로 '밀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화초를 그린 滴자에 水자를 더한 滴자는 화초에 물을 조금씩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다만 우리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竊

훔칠 절

竊자는 '훔치다'나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竊자는 총획이 22획이나 되는 매우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복잡한 구성만큼이나 복잡한 변화를 거친 글자이기도 하다. 竊자는 穴(구멍 혈)자와 采(분별할 변)자, 그리고 쌀벌레가 그려져 있다. 竊자에 있는 尪자는 쌀벌레를 그린 것이다. 또 竊자에 쓰인 采자는 米(쌀 미)자가 해서체에서 잘못 옮겨진 것이다. 采자를 米자로 바꿔놓고 보면 竊자는 쌀벌레가 쌀을 갇아먹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竊자는 곡식 창고에 있는 쌀을 벌레가 먹어치운다는 의미에서 '훔치다'나 '도둑질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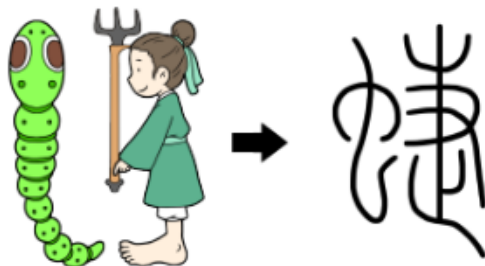
竊

소전

竊

해서

회의문자①



蝶

나비 접

蝶자는 '나비'를 뜻하는 글자이다. 본래 '나비'를 뜻했던 글자로는 蝶(나비 접)자가 있었다. 蝶자에 있는 捷(디딜판 섭)자는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蝶자는 '빠른 벌레'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虫(벌레 충)자와 葉(나뭇잎 엽)자가 결합한 蝶자가 '나비'를 뜻하게 되었다. 葉자는 나무줄기 위로 잎이 올라온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뭇잎'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나비는 화려하고도 넓은 날개를 가진 곤충이다. 그러니 나뭇잎을 뜻하는 葉자는 나비의 날개를 비유하기 위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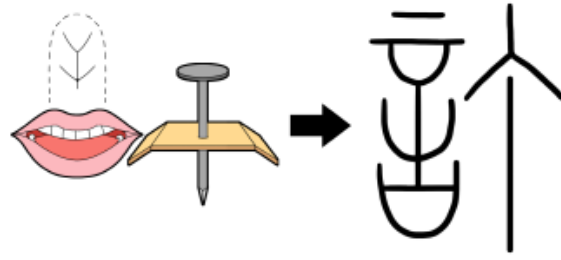
蝶

소전

蝶

해서

회의문자①



訂

바로잡을
정

訂자는 '바로잡다'나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다'나 '고치다'라는 것은 말이나 글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는 뜻이다. 訂자는 讠(말씀 언)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丁자는 무언가를 고정할 때 사용하던 못을 그린 것이다. 못은 목재를 서로 이어주거나 고정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러니 訂자에 쓰인 丁자는 어긋난 부분을 못질로 바로 잡듯이 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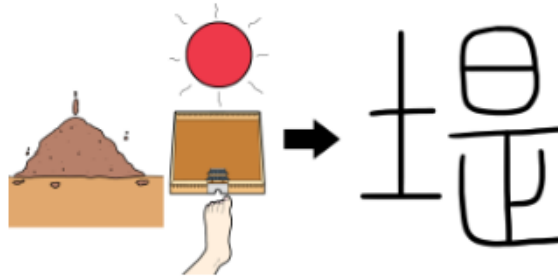
訂

소전

訂

해서

회의문자①



埧

독 제

埧자는 '독'이나 '방죽', '(독을)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埧자는 土(흙 토)자와 是(옳을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是자는 시간이 정확하게 흘러간다는 의미에서 '옳다'나 '바르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 埧자는 이렇게 '바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是자에 土자를 결합한 것으로 '독을 바르게 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埧

소전

埧

해서